“이웃과 중생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살고



2018년 금산사 연등장엄 아래에서 활짝 웃는 월주 대종사.



1998년 실업극복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한 월주 대종사(사진 오른쪽),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1970년대 부여 백마강에서 배를 타고 고란사 옆 조룡대를 지나는 월주 대종사.

한 시대의 선지식을 보내며

이 시대가 힘겹고 위태로운 것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느 시절이나 한 시대가 어려운 것은 ‘오늘’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말 한 마디가 없을 때, 대중은 힘겨운 것이다.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나온 시절이 한 시절이라도 있었을까.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오늘보다도 더 어렵고 위태로웠던 시절도 분명 있었음이다. 그래도 한 시절 한 시절을 살아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일러주고 다독거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대나 앞서 대중을 생각을 하는 이가 있고, 앞서 힘겨움을 짊어지는 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그렇게 오랜 세월 앞서 살았던 선지식을 보낸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적으로 슬픈 하루를 맞는다.

오늘, 한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말 한 마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우리는 또 한 번 한 시대를 걱정했던 선지식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시대를 걱정하던 선지식과의 인연이 다했다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슬픔이다. 한 평생, 말도 안 통하는 저 먼 곳까지 두루 살폈던 한 시대의 선지식이자 보살이었던 그를 이제 먼 곳으로 보내야 한다. 한 시대가 그 시대의 선지식을 보내는 일이야말로 백신 없는 난세를 맞는 일과 같은 것이리라. 그리고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선지식을 또 다시 기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일 것이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남긴 지난날을 모아 그를 기억한다.

박재완 기자